

# 근린 환경이 아동의 생활시간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공간의 과제

강현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최이명  
두리공간연구소 부소장

## 아동 생활시간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

아이들은 분절 앞에 약하다. 오늘날 성인의 편의를 기준 삼아 만들어진 도시환경, 그리고 장소와 주체가 나뉜 돌봄 서비스의 결합은 아이들을 개별 시설과 서비스 단위로 분절된 점 단위에 고립시킨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시작되는 ‘돌봄 절벽’은 공적 돌봄서비스의 빈틈이 낳은 ‘시간’의 문제에 돌봄 장소 간의 이동에서부터 난관을 겪는 ‘공간’ 문제가 결합하여 양육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한편, 아이들의 생활시간 균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한편 지난 코로나 시기는 돌봄과 교육 기관이 폐쇄되고 생활인프라 이용이 제한된 시점에서 가구 단위의 고립이 아동의 생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극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아동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빈곤가정·저소득층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생활시간 균형이 무너지고 행복지수가 낮아지며, 계층별 학습·여가 시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코로나 시기 생활시간 균형의 문제는 장기적인 회복의 과제를 남기는 한편, 아이들이 자라나는 물리적 환경의 격차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남겨주었다.

아동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아동 생활시간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한국에서도 국제적 권장기준에 제시

된 4개 핵심 생활시간(수면, 공부, 운동, 미디어)을 중심으로 한 ‘아동균형 생활시간 권장기준’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팬데믹이 남긴 또래와의 관계 위축은 극심한 경쟁사회 속 점점 낮아지고 있는 선행학습 연령, 차량 위주의 이동 증가, 실내 생활의 고착화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아이들의 균형 있는 일상을 점점 더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동의 일과에 영향을 주고 있는 물리적·사회적 요인을 추적하여 그 속에서 생활시간 균형을 깨뜨리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균형 회복을 위해 공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노력하는 정책은 여전히 한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아동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일상이 개인-가구-근린 환경 차원의 요인들에 의해 어떻게 변주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근린 환경 단위에서 아동 생활시간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아동 돌봄안전과 근린 환경의 관계를 다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최근 연구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의 일상과 생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 환경의 특성을 들여다보고, 아이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근린 공간의 역할을 조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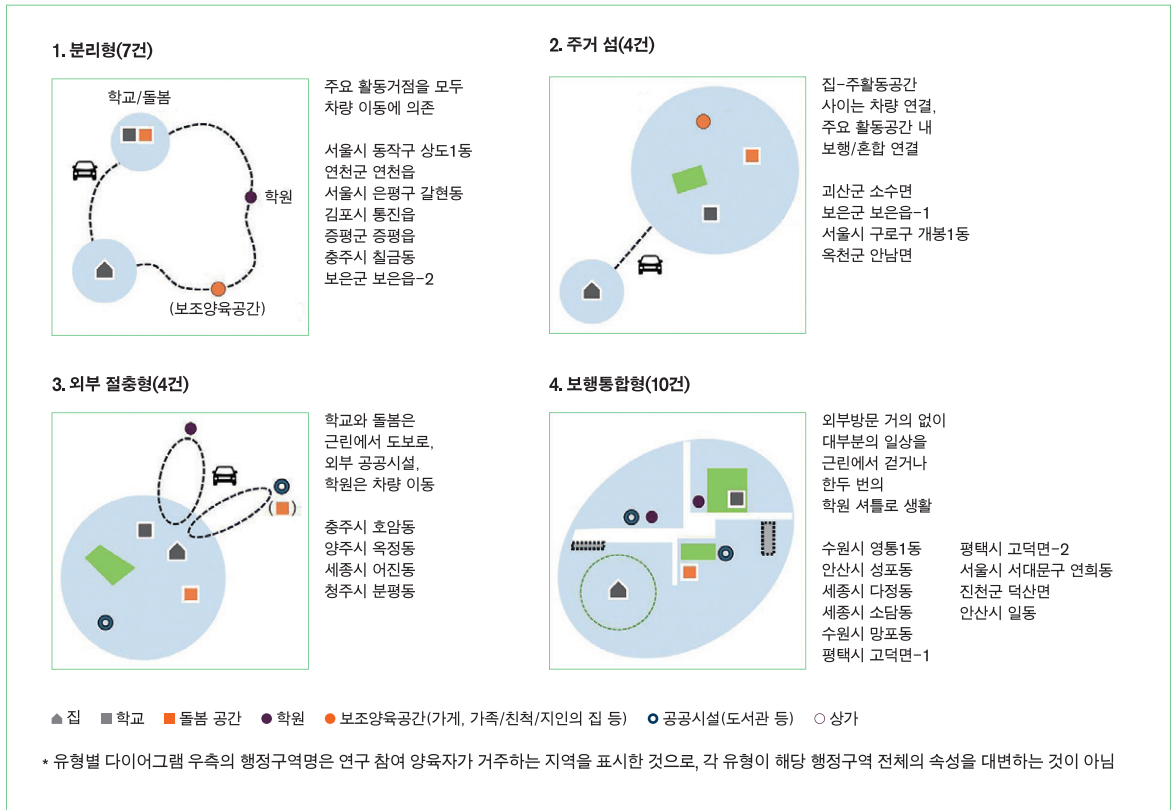
## 근린 특성과 아동의 이동 패턴

이동 패턴 유형(activity-transportation lifestyle)은 근린 환경 여건과 이동수단을 결합한 개념이다. 초등학교 2~4학년 아동 25명 아동의 이동 패턴을 집·학교·돌봄공간·학원 등 주요 활동거점 간의 연결 수준과 이동 방식을 조합하여 분류한 결과 ①분리형, ②주거 섬 유형, ③외부 절충형, ④보행통합형의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각 유형의 이동 패턴은 근린 환경과 접촉하는 방식에 큰 차이가 있고, 자유로운 놀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신체활동 및 또래와 교류하는 시간

\* 아동이 하루 동안 경험하는 다양한 시간 중에서 미국, 영국, 호주 등 국제적인 권장기준이 존재하는 4개 핵심 생활시간(수면, 공부, 운동, 미디어)을 중심으로 미국 국립수면재단(NSF), 세계보건기구(WHO), 호주 보건부의 권장시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된 기준이다(정의중 외, 2016).

\*\* 강현미 외(2024)에서 수행한 ‘아동돌봄안전망에 근거한 아동 돌봄 실태와 취약요인 분석’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조사는 건축공간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실시하였으며(IRB 승인번호 제2024-0239호), 조사 수행과 데이터 심층 분석에 두리공간연구소 최이명 부소장이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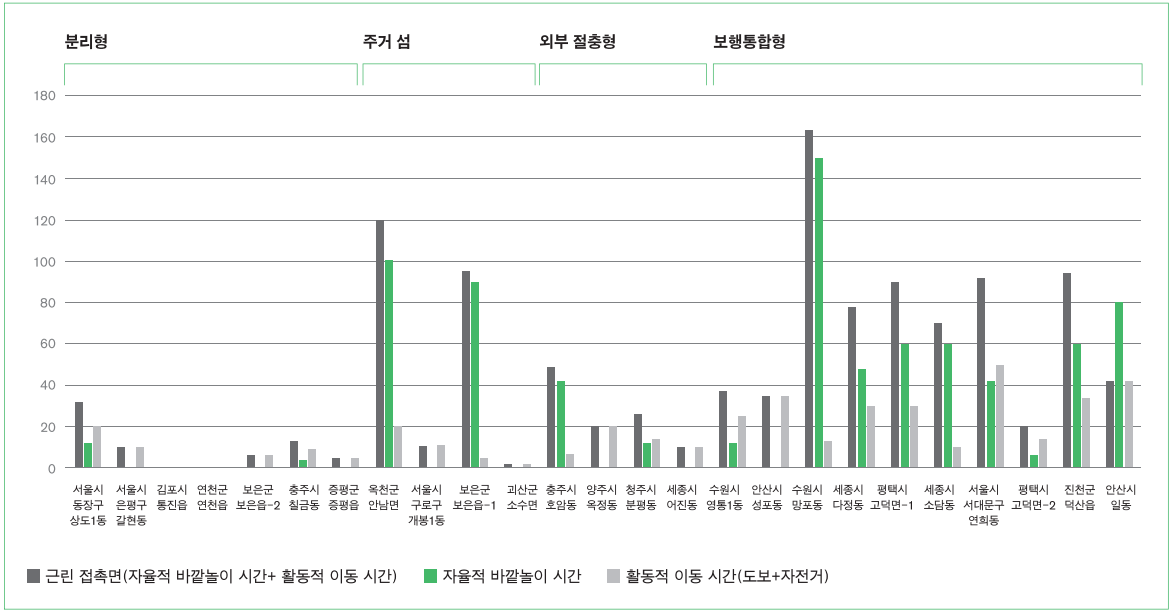
#### 아동의 이동 패턴 프로토타입

출처: 강현미 외(2024, p.265)

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네 유형 가운데 차량 의존성이 가장 강한 분리형에서부터 대부분의 활동 장소가 도보로 연결되는 보행통합형에 이르는 유형의 차이를 각자 살펴본다.

먼저 분리형 유형은 주요 활동공간들이 모두 분리되어 있어 장소간 이동을 모두 차량에 의존한다. 근린과 접촉면이 거의 없는 수준이며 놀이와 보행시간의 합이 10분 이내로 매우 짧다.

주거 섬 유형은 집에서 주요 활동공간사이를 차량으로 이동하지만 학교나 돌봄시설, 학원 등이 있는 주요거점 주변의 생활권 내의 이동은 보행 위주로 구성된 패턴이다. 집 근처와 학교 근처 활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거주하는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적 보행 및 또래와의 교류가 일어나기 어려우며, 방과 후에 어디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해 사회적 환경 즉 양육자의 돌봄이나 마을 돌봄, 근린 내 시설 이용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아동의 이동 패턴 유형과 근린 접촉면  
출처: 강현미 외(2024, p.265)

외부 절충형 이동 패턴은 집에서 학교 및 돌봄기관까지는 근린에서 도보로 이동하고, 이후 학원이나 공공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위해 차를 타고 근린 외부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경우이다. 집-학교 공간과 학원 공간이 차량 이동으로 단절되어 있고, 돌봄이 끝난 이후의 개인 시간을 근린 밖에서 보내게 되므로 방과 후에는 학교에서 사귀 친구들과 교류가 자연스럽게 지속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주요 생활공간이 하나의 생활권 내에서 도보로 연결되는 보행통합형 이동 패턴이다. 이 유형은 아동의 놀이와 보행을 매개로 또래와의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점에서 앞의 세 유형과 큰 차이가 있다. 보행통합형 이동 패턴에서는 일상적 걷기가 생활화되어 있으며, 일주일에 한두 번 학원 셔틀 이용이 병행되기도 한다.

아동의 이동 패턴 유형은 양육자가 아동의 성향과 역량 및 필요에 비추어 근린 환경의 특성을 판단한 태도에 선호가 결합된 결과물로, 거주 밀도와 주택 유형, 보행환경이 조합되어 만들어내는 근린 환경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분리형 이동 패턴은 밀도가 낮은 농촌 지역에서 나타나기 쉽지만, 도시 지역에서 근린 내 교통안전이 열악하거나 학구도상 집 위치가 고

립된 경우도 해당된다. 주거 섬 이동 패턴은 읍내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먼 단위 농촌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아파트와 저층주거지가 혼재된 도시 주거지에서도 관찰되었다. 외부 절충형 이동 패턴은 보행권 내에서 목적시설이 어느 정도 풍부할지라도 양육자나 아동이 원하는 특정 생활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이용 여건이 맞지 않는 경우, 생활권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주거지에서 많이 나타난다. 보행통합형 이동 패턴은 아이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 대도시 중 공공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 그리고 신도시 또는 신규개발지구로서 생활권 계획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에서 주로 관찰된다. 이는 통상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 일컬어지는 신축·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전형적인 환경으로, 단독·다세대주택 등 아파트 외의 주택이 주를 이루는 저층주거지의 근린 환경과 큰 격차를 보인다.

## 아동 생활시간과 이동 패턴 유형의 관계

25명 아동의 생활시간 사용 방식을 ‘미디어 중심 실내 생활형’, ‘균형 잡힌 실내-외 활동형’, ‘감독·관리되는 학습 중심 생활형’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생활시간 유형과 이동 패턴 유형을 대응시키면서 아동의 일과와 양육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근린 환경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아동의 이동 패턴은 생활시간의 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정 이동 패턴이 생활시간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심화시키는 경향이 나타난다.

먼저 보행통합형 이동 패턴의 경우, 균형 잡힌 실내-외 활동형 생활시간을 보이는 아동들을 상당수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도보로 통학하고 근린 내 시설을 이용하며 또래와 교류하는 활동적인 아동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져 생활시간의 균형을 이루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디어 중심 실내 생활형 아동은 보행통합형 이동 패턴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는 근린 환경과 접촉면이 적고 주로 실내에서 미디어를 이

\* 아동 생활시간을 교과 학습과 예술(취미) 수업, 신체활동, 바깥놀이, 활동적 이동, 스크린타임, 차량 이동시간 등 7개 범주로 구분한 후 군집분석을 통해 유사성이 발견되는 3개 유형을 도출하였다. 활동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로는 캐나다의 24시간 운동지침(Canadian 24-Hour Movement Guidelines for the Children and Youth 5-17 years)에 제시된 4개 영역과, 아동의 일상적 활동을 실증자료로 수집한 선행 연구의 분류 기준을 참고하였다.

생활시간 유형 군집별 이동 패턴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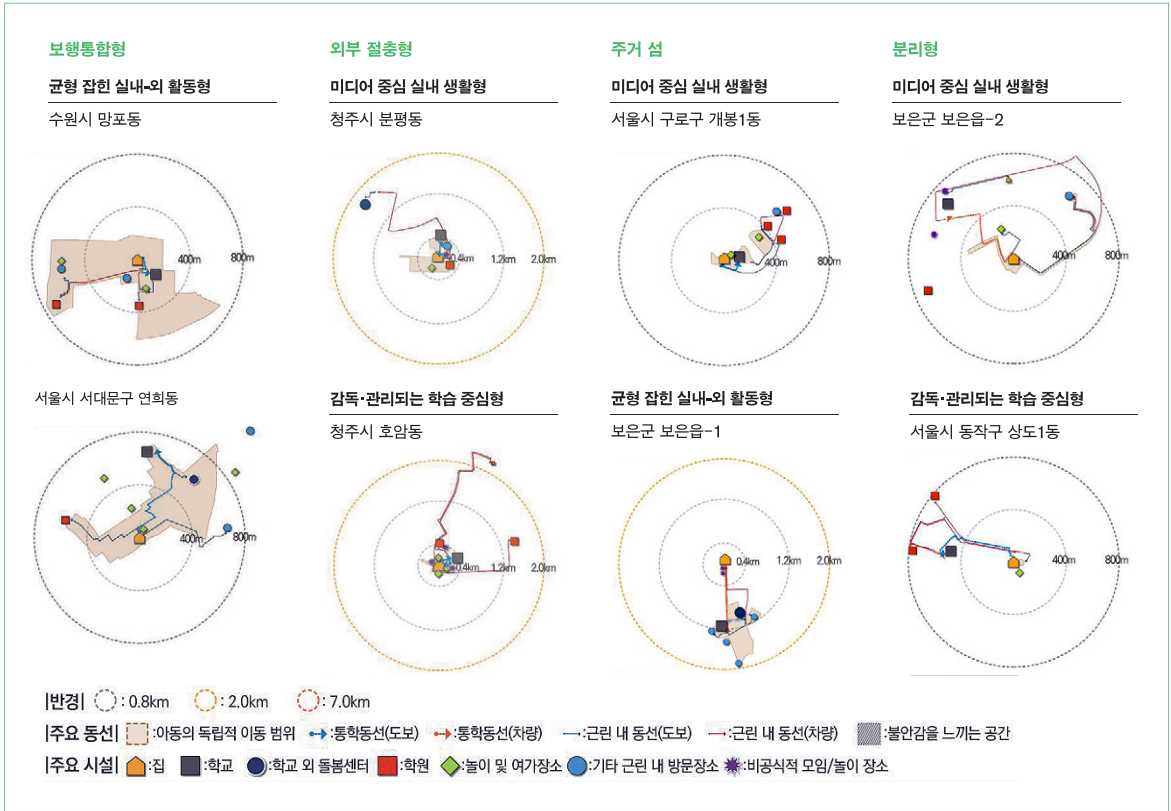
생활시간 유형	특성		이동 패턴 유형			
			분리형	주거 섬	외부 절충형	보행통합형
미디어 중심 실내 생활형	학습 적음 음악, 미술, 취미수업 많음 차량 이동 시간 편차 큼 감독되는 신체활동 편차 큼	바깥놀이 거의 없음 동네 도보 가장 적음 스크린타임 전반적으로 높음	4건 동 지역 1건 읍 지역 3건	2건 동·면 지역 각 1건	2건 *모두 동 지역	1건 면 지역 1건
균형 잡힌 실내-외 활동형	학습 적음 음악, 미술, 취미수업 적음 차량 이동 시간 가장 적음 감독되는 신체활동 편차 있음	바깥놀이 가장 활발 동네 도보 일정 수준 이상 스크린타임 중간	-	2건 읍 지역 1건 면 지역 1건	-	6건 동 지역 4건 면·읍 지역 각 1건
감독·관리되는 학습 중심형	학습, 음악, 미술, 취미수업, 감독된 신체활동 모두 많음 차량 이동 시간 편차 큼	바깥놀이 미미함 동네 도보 가장 많음 스크린타임 가장 적음	3건 동 지역 2건 읍 지역 1건	-	2건 동 지역 2건	3건 동 지역 3건

출처: 강현미 외(2024, p.272) 수정

용하는 생활 방식이 도보 중심의 활동적인 이동 및 외부 활동과 상반되기 때문에 해석된다. 보행통합형 이동 패턴은 대단지 아파트와 같이 아동에게 필요한 인프라가 풍부한 환경이나, 만족도가 높은 학교 밖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저층주거지 거주 아동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주거 섬 유형에 해당하는 아동들 가운데서는 미디어 중심 실내 생활형과 균형 잡힌 실내-외 활동형이 양분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유형은 주거지와 학교, 또래의 주요 생활 공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친구들과의 교류 정도와 학교 주변 환경 활용 여부에 따라 생활시간 균형이 달라질 수 있다. 방과 후에도 마을돌봄시설 같이 긴밀히 공유하는 목적지가 있거나, 도서관 등의 생활인프라를 통해 또래와 친밀감이 높은 경우 근린과 접촉면이 형성되어 균형 잡힌 생활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미디어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외부 절충형 이동 패턴을 보이는 아동 그룹에서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 미디어 중심 실내 생활형, 외부 이동이나 학원 일정이 많으면 감독·관리되는 학습 중심형 생활방식이 발견되고, 균형 잡힌 실내-외 활동형 생활시간 패턴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들은 학교 밖에서는 또래 간 친밀감을 형성할 활동이 부족하고 학원 일정이 도보생활권과 단절된 채 외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린 환경 경험 측면에서 불리하다. 이러한 아동



아동 이동 패턴별 대표적 생활시간 사례  
출처: 강현미 외(2024, p.265)

에게는 집 근처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거나, 일상 루틴을 야외 활동으로 전환하는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분리형 이동 패턴을 보이는 아동 그룹은 외부절충형 이동 패턴 그룹과 마찬가지로 균형 잡힌 실내-외 활동형이 없고, 미디어 중심 실내 생활형과 감독·관리되는 학습 중심형으로 나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모두 동 지역에 해당하는 외부 절충형 이동 패턴 그룹과 달리 농촌 읍 지역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인구밀도가 낮아 학교를 포함한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서로 먼 상황에서, 개별적인 차량 이동은 아이들의 활동을 서로 분리시키기 때문에 장소 간 이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즉 도보권을 벗어나는 권역에서 공유하는 거점 생활인프라를 활용하되, 다수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의 이동 지원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균형 잡힌 실내-외 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질적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생활시간 분석이 보여주는 아이들의 시·공간 사용 방식과 생활시간의 균형 수준, 공적 돌봄 및 자구책으로서의 민간 서비스 이용, 돌봄 수요에서 파생되는 사교육 이용의 복합적 양상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근린 환경 조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세분화된 체계로 접근해야 할 과제를 보여준다.

먼저 아이들의 시간활용 유형 중 미디어 중심 실내 생활형 아이들의 생활방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이 그룹의 하루 미디어 사용시간은 135분으로 하루 권장량 120분을 넘어서고 있으며, 걷기-바깥놀이-구조화된 신체활동을 합산해도 하루 평균 1시간을 채우지 못한다. 돌봄 공백 발생빈도와 시간이 높은 아이들이 이 그룹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공백 시간은 스크린타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학교 정규 수업이나 공적 돌봄프로그램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에 역부족이며, 정적 활동을 즐기는 성향의 아이들의 경우 더욱 신체활동에서 멀어지기 쉽기 때문에 근린 환경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신체활동을 유도하는 놀이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공간사용 유형 가운데 분리형과 주거 섬 유형, 외부절충형 이동 패턴을 보이고 있는 아이들 각 그룹을 위한 세분화된 해법이 필요하다. 분리형의 경우 적어도 집이나 학교 생활권 중 최소한 하나에 대해서는 아이에게 고립되지 않은 활동공간으로서 근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지역사회와의 관계, 그 속에서 형성되는 경험을 박탈하는 것은 돌봄 공백의 해소라는 목적을 위해 아이의 큰 유익을 희생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주거 섬 유형의 아이들을 균형 잡힌 활동으로 유인하는 것은 친밀감 깊은 또래의 존재이므로, 학교 주변에서 편안히 시간을 보내며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앵커 역할의 공공공간을 조성하면 학교 후 친구들과 단절되는 고립된 환경의 아동에게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외부절충형 패턴의 아이들은 현재 사는 거주지 내에서 충족되지 않는 돌봄이나 기타 프로그램 수요를 공적 자원을 통해 보충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요구되며, 단기적으로는 거주지의 자원을 활용하여 근린 내 활동을 늘려야 한다. 학교, 텃밭, 공공기관, 오픈스페이스 등 기존의 물리적 환경에 사회적 해법을 결합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근린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파리 15분 도시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근린 환경에 대한 세분화된 접근 가운데서도 강조해야 할 공통적인 과제는, 아동의 일상에서 근린 접촉을 줄이고 미디어 몰입 가능성을 높이는 차량 이동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근린 내 돌봄 보장과 공공인프라 확대를 통해 학습, 신체활동, 놀이, 보행이 통합된 공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와 생활시간 균형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지향해야 할 기준점이다.

#### 참고문헌

- 1 강현미, 강지원, 김나영, 윤진희, 한수경, 최이명, 이소영, 이지혜, 조숙인, 권미경, 성유현, 임준경, 김희수. (2024). 아동 성장을 지원하는 근린 단위 돌봄안전망 공간 모델 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 정익중, 박현선, 최은영, 이수진, 정수정, 최선영, 김기태. (2016). 아동권리지표 개발 연구보고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